



◁식발식 후 동자승이 어색한듯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동자승이 식발수계식후 엄숙한 표정으로 가사를 이마까지 올리며 '계를 받들겠다' 서원하고 있다.



◁동자승들이 16일 식발수계식을 갖고 조계종 총무원장법정스님에게 첫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엄마 보고 싶어도 참고 부처님 지혜 배울래요”

동자승 12분 탄생하던 날

이슬 같은 12명의 동자승이 탄생했다. 동자승 12명의 식발수계식이 열린 16일 서울 경지동 조계사 앞마당. 부처님 마음 같은 해맑은 동심을 간직한 5~6세의 동자 12명이 4일간의 행자생활을 마치고 식발수계를 위해 가지런히 앉아있다. 잠시 후 계사인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이 법좌에 오르자, 동자들도 여법한 모습으로 입정에 든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동으로 오시었네. 깊은 뜻 말씀 믿음으로 출가하고자 하옵니다라는 거향찬에 이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읊송된다. 향과 꽃으로 수계를 청하자 계사 지홍 스님(조계사 주지)은 “부처님과 인

쌍둥이 출가시키고 “생애 가장 기쁜 순간”

연공덕을 쌓고, 자비정신을 배우라”며 “이러한 자비정신이 나중에 커서 선악의 갈림길에 설 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번뇌 망상을 다 살라낸 식발식. 6명의 스님이 동자들의 머리를 몇 번 커터기로 밀자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하지만 동자승들은 어색한 듯 손으로 없어진 머리를 만져볼 뿐 천진난만하기만 하다. 지난해에는 동자승들의 식발식장이 울음바다로 변했지만 올해는 12일부터 나흘간 행자생활을 한 덕에 웃겼던 것이다. ‘계를 수지하여 받들겠다’는 서원으로 연비를 마치고, 오락약세와 인연을



◁동자승들이 17일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에게 '새만금 갯벌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좋은 수계식으로 이어지면서 간간히 장난기가 발동하던 동자들도 엄숙해진다. 드디어 가사를 입는 수축만의. 동자승들은 가사를 두 손에 들고 이마까지 올린 뒤 부처님께 발원한다.

동자승 정향스님(정인영)은 “저희들은 꼬마스님이 된 만큼 친구스님들과 싸우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잘하겠으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동자들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마지막 순서는 꽃다발 증정.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다. 동자승들과 부모들은 잠시 손을 맞잡는다. 동자승들은 부모님들과 헤어짐에도 별다른 동요가 없다. 오히려 부모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동자승 정원스님(곽경민)은 “머리를 깎아 시원해진 것이 달라진 점”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기 위해 30일간 엄마가 보고 싶어도 참을 것”이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정관스님(박재욱)의 아버지인 박영철(마포소방서)씨는 “나름대로 승복과 삭발한 모습을 보니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간 느낌이 든다”며 “부모의 뜻이었지만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쌍둥이인 정범(심명관) 정행(심명석)스님을 출가시킨 석주현 보살은 “생애 가장 기쁜 순간”이라며 “부처님의 공덕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란 것 같다”고 밝혔다.

가사를 걸친 동자승들은 바로 총무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법정스님은 “애기스님들 머리를 깎으니 좋지요”라며 복주머니와 사랑을 한아름 선물한 뒤, “부처님 열심히 믿으라” 말했다.

“새만금 살려주세요” 수경 스님 방문

출가 이튿 날인 17일 동자승들은 새벽부터 충남 대천으로 향했다.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에게 오랜만에 웃음꽃을 선사했다. 동자승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개펄그림을 전달하며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수경스님은 “어이구 꼬마스님들이 오셨구만. 제대로 된 개펄 하나 물려주지 못하다니 미안해”라며 어린이들 손을 꼭 잡았다.

동자승들은 18일 평화사절로 이슬람 사원 방문. 오후 8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리는 만화영화 오세암 시사회에 참석 등 바쁜일정을 거론히 감명했다.

올해로 네번째다. ‘동자승 출가 30일간의 출가’에 참가한 동자승들은 일반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예불과 경전공부, 저녁예불을 하며, 일반시민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무언으로 전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몰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